

얼음 깨기

오늘 하루 마음에 남은 찬양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나 일과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귀에 들려왔던 찬양, 차에서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는데 흘러나온 찬양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하루가 흘러갔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느끼며 하루 종일 입에 맴돌았던 찬양이 혹시 오늘도 있으셨나요?

1. 오늘 하루 종일 마음과 입에 맴돈 찬양이 있다며 무엇이었나요?
2. 오늘이 아니면,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찬양은 무엇인가요?

교회행사

10월

13-16일 김형국목사와 함께하는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27일 2025 더비기닝 선교학교(2주차)
24-31일 세례 문답 공부
26일 교사 컨퍼런스

11월

2일 세례문답식
3일 세례식, 신입투표
10일 성찬식
마하나임, 트리니티 찬양예배
17일 추수감사주일

경배 찬양

오직 예수 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선교

[윤지상 선교사]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정이 될 수 있도록
2.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3. 반동 소래양 장애아치료센터 필요 재정을 위해서

소식

1. 사역지원
나누어지면 가뭄입니다. 2025년 사역을 위한 사역지원 함께 마음 모아 주세요
*날짜 : 11월 3일 주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1층 로비에 신청서와 신청함이 있습니다.
2. 더 비기닝 선교 학교
10월20일 주일부터 12월 1일 주일까지 7주간의 모든 여정이 잘 마쳐지기를 기도해주세요
3. 청빙인사
이득근 목사(김은선 사모, 아울, 아현, 아빈)가 청빙되어 부임했습니다.
4. 성탄절 선교사 선물보내기
우리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23가정의 선교사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보내려합니다. 11월 10일 주일까지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4. 세례식
11월 3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5. 청지기성경적재정교육(BFS)
하나님의 재정원칙들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기간 : 10월 28일(월) ~ 12월 23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9시
*접수마감 : 10월27일(주일)까지 선착순 마감 *문의: 김삼환 장로(010-9660-0386)

한 문장 큰 울림

오늘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참고 견디라.
이것이 내일을 찬미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

- R.L. 엘리언 -

[애 5:1]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피보옵소서

5장은 슬픔에 빠진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인해 논리정연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혼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4장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운율에 맞추어 정연한 시를 적은 것과 대조되게 5장은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으며 예레미야의 좌절과 혼란을 극대화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끝까지 항전한 유다

고대 근동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은 침략을 받았을 때 많이 항전하지 않고 항복한 나라들에게는 승리한 나라가 관용책을 펼친 반면 끝까지 항전한 나라는 생활터전을 부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잔인한 억압정책을 폈습니다. 유다 역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항복하지 않고 18개월이나 항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 희망을 잃지 않는 예레미야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5:1]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피보옵소서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이어 2-5절은 예레미야가 현재의 상황을 토로하고 6-7절은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자신들의 지은 죄를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나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예루살렘과 같이 어렵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3.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또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현재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펼쳐진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시키는 분노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 인자와 사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가 있으니 그 날을 볼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이 오래되고 계속 될수록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4.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심으로 응답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로 인해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치적인 중요 요직에 오르고 있었고,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언을 시작했으며, 바벨론으로 끌려 갔던 여호아긴 왕이 복권 되게 되고, 후에 스룹바벨과 세스비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개 같은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엘리아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아주 작은 응답의 전조들부터 보이기 시작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나눔] 오늘까지의 삶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기억이 있나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나눔] 근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건이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었나요?

나눔

[우리를 살피보옵소서 / 예레미야애가 5:1-10]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